

경도정신지체학생들의 배치형태에 따른 자기결정력과 삶의 질 비교

김 용 옥

대구대학교 교수

박 성 우*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

최 기 상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

《요 약》

이 연구는 경도정신지체 학생들의 배치형태(특수학교, 특수학급, 통합학급)에 따른 자기결정력과 삶의 질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설치되어 있는 2개 특수학교와 14개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간단한 문자나 몸짓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도정신지체 68명을 대상으로 검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학생들이 분리형태(특수학교)가 아닌 보다 통합된 환경(특수학급 및 통합학급)에 배치되어 있을 경우 자기결정력과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자기결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삶의 질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자기결정력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배치형태, 자기결정력, 삶의 질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장애 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 능력은 개인과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에서의 완전통합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교신저자(dream24@moe.go.kr)

이에 학교 교육은 장애 개인과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이들이 지역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장애 학생들을 위한 주요 교육 프로그램의 결정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을 배제한 채 대부분 교사에 의존하여 왔으며, 장애 학생들이 어떠한 의미는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부족하였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수교육의 목표가 장애 학생들의 졸업 후 성인기 생활로의 성공적인 적응과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에서의 완전통합을 전제로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및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매우 모순적이라 할 수 있다.

Wehmeyer과 Palmer(1998)는 이러한 이유를 특수한 학습 요구를 가진 학생들이 장차 자신의 미래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자기 충족적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기능들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장애 학생들의 성인기 전환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도 이들의 졸업 후 성인기 결과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1985년부터 1990년까지 5년에 걸쳐 특수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미국전환교육 중단연구(National Longitudinal Transition Study : NLTS) 및 Blackorby와 Wagner(1996) 등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학생들의 경우 비장애인들에 비해 학교 졸업 후 낮은 취업율과 중도탈락율,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 등에 있어 매우 회의적인 것으로 보고하였고, 이에 특수교육의 정의와 범주에 대한 수정, 장애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전통적인 서비스에 대한 재고, 특수 유아의 조기 중재를 포함한 서비스 전달 체제의 확장, 완전통합교육의 찬·반론을 고려한 새로운 특수교육의 장마련 등과 같이 특수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개혁이 대두되면서 자기결정력에 대한 연구가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수교육 분야에서 자기결정력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로는 첫째, 독립생활과 정상화 그리고 자기권리 주장운동의 활발한 전개로 인한 장애학생들에 대한 인식변화와 이들을 사회에 완전 통합시켜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변화와 둘째, 선행 연구(Wehmeyer, 1992; Wehmeyer & Schwartz, 1997)들에서 자기결정력과 성인기 생활로의 성공적인 전환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지지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성인기 생활로의 성공적인 전환은 장애 학생들뿐만 아니라 비장애학생들에게도 매우 주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으나, 장애 학생들의 경우 그들 자신의 장애와 관련된 신체적, 인지적 그리고 행동적 문제나 장애상태에 따른 사회적 관계 형성의 문제, 가정의 지나친 우려 및 장애 학생들의 독특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제 마련의 무능으로 인해 곤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장차 장애학생들이 성공적인 성인기 생활을 살아가는데 있어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고착화된 기대를 가지게 함으로써 성인기의 성공적인 전환에 큰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은 장애 학생들이 졸업 후 성인기 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전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러한 전환계획과 더불어 장애 학생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결정력이라 할 수 있다.

Wehmeyer(1992)는 자기결정력을 ‘부당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삶의 질과 관련된 선택을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일차적인 대변인으로서 행동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자기결정력의 습득은 장애학생들의 삶의 질의 향상뿐만 아니라 성인기 생활로의 성공적인 전환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특수교육의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특수교육의 재구조화, 그리고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오늘 날 장애학생들의 자기결정력 부족에 대한 조사와 자기결정력에 관한 사회 심리학적 탐구 그리고 실제 교육환경에서 자기결정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체계적 교수접근으로서 자기결정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자기결정력의 습득은 경도의 장애학생들뿐만 아니라 중증의 장애학생 및 일반학생들까지도 자신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고등부 1학년에 재학 중인 경도정신지체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배치형태에 따라 자기결정력과 삶의 질을 비교함으로써 장차 장애학생들이 졸업 후 성인기 생활에 성공적인 적응에 필요한 학교 교육의 실제적 접근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목적

첫째, 경도정신지체학생들의 자기결정력에 있어 배치형태(특수학교, 특수학급, 통합학급)에 따른 차이를 밝힌다.

둘째, 경도정신지체학생들의 삶의 질에 있어 배치형태(특수학교, 특수학급, 통합학급)에 따른 차이를 밝힌다.

셋째, 경도장애학생들의 자기결정력과 삶의 질 간의 관계를 밝힌다.

II. 이론적 배경

1. 특수교육에서의 자기결정력 연구

그 동안 장애 학생들의 교육성과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1세기의 특수교육은 장애인들의 완전한 시민권 부여와 책무성을 촉진시키는데 주안을 두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애 개인의 자기결정력 신장과 지역사회에서의 완전 통합운동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개인으로서 시민권과 소속감을 부여받기 위한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자기결정력이란 용어는 전환서비스와 관련하여 특수교육영역에서 최근 들어 매우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심리학과 정치학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온 용어들이다. Wehmeyer(1997)는 자기결정력을 정치학에서는 자치를 위한 국가의 권리로 언급하였고, 심리학에서는 동기유발과 함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로, 그리고 특수교육에서는 교육적 성과로 개념화하였다.

현재 자기결정력에 대해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정의로서는 Wehmeyer(1992)의 정의를 들 수 있다. Wehmeyer는 자기결정력을 ‘부당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삶의 질과 관련된 선택을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일차적인 대변인으로서 행동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자기결정력의 본질적 특성으로 자율적 기능(autonomous functioning), 자기 조정(self-regulation), 심리적 권한 부여(psychologically empowerment), 자아실현(self-realization)을 들었다.

이러한 Wehmeyer(1992)의 정의는 교육적 맥락에 근거하여 자기결정력을 교육적 성과로 개념화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교육과정 내에 자기결정력을 삽입시킴으로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자기결정력을 신장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환 및 교육계획에 학생들을 능동적으로 참여시키는데 있어서도 효율적일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정의에서는 자기결정력과 교육 간의 관계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 학생들에게 자기결정력을 가르치고자 할 때 특수교육 서비스 전달 체계와 다양한 교육 환경들을 다요소적인 맥락에서 고려함으로써 장애 학생들의 자기결정력 신장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졸업 후 성인기 생활로 전환하고자 할 때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결정력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자기결정과 관련된 어떤 구조나 특성들을 측정하거나 밝히는데 주안을 두어 왔고, 그 외에는 주로 자기결정력과 전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자기결정력이 성인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여 왔다.

자기결정력과 관련된 구조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Wehmeyer과 Kelchner 그리고 Richard(1995) 등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며, 이들의 경우 정신지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결정력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검사도구들의 효율성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후속 연구자들이 자기결정력에 대해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특히 검사 도구들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해 줌으로써 다양한 연령과 장애 수준을 가진 개인에게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 외에도 자기 효능감에 대한 인식과 심리적 권한 부여, 문제해결기술, 인지기술, 개인간 기술(Wehmeyer, 1994)에 관한 연구라든지 학습 귀인과 통제소재, 자율성(Wehmeyer & Kelchner, 1996) 등과 같은 연구들은 주로 자기결정력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의 심리적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자기결정력은 특히 개인의 문제해결능력과의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기서 문제해결이란 자신이 직면한 문제의 유형이나 심각성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Agran & Hughes, 1998)

Wehmeyer(1992)은 자기결정력을 자신의 인생에서 행위 주체자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결정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문제해결능력의 유창성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자기결정력의 이점과 특징 및 전략에 대한 교사의 인식수준을 조사한 Agran과 Snow 그리고 Swaner(1999)의 연구에서도 응답자 중 72% 교사들이 자기결정력과 문제해결기술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Agran과 Wehmeyer(2000) 또한 장애인들의 자기결정력 기술의 신장을 통해 문제해결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이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직면한 상황에 적합한 문제진술하기,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해결방안 모색하기, 해결방안을 선택하기, 평가를 통한 수정이나 강화하기의 4단계를 제시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자기결정력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자들로서는 Field와 Hoffman, Wehmeyer, Wolman, Sawilowsky 등을 들 수 있다.

Field 등(1992)은 95명의 학생(장애학생 : 48명, 비장애 학생 : 47명)들을 대상으로 학교 환경에서의 8가지 자기결정 차원 즉, 선택에 대한 탐색, 목표설정, 결정하기, 대화기술, 자기 자신 변호하기, 유머 사용, 위협이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상호작용 행동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선택에 대한 탐색, 결정하기, 대화기술, 자기 자신 변호하기 영역에서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집단에 대한 사전 행동의 관찰 결과 연구 초기에 있어서는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의 행동간

에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검사 결과 장애 학생들이 비장애 학생들보다 자기결정력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ield 등(1992)의 연구는 비록 척도를 통한 단순한 통계 자료의 제시 형태로 이루어 지기는 하였으나, 자기결정력과 개인의 잠재성간의 관계를 최초로 밝힌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450명의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여러 가지 기질적 특성에 따른 자기결정력과의 관계를 연구한 Wolman 등(1994)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의 정도나 경제 수준 및 특수교육에 대한 참여 유무에 따라 개인의 자기결정력 수준에 차이를 보인데 반해, 연령과 인종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자기결정력의 경우 학생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연스럽게 신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는 전혀 상이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자기결정력 수준은 연령 외에도 자기결정과 관련된 경험이나 기회의 제공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장애 학생들의 장애정도와 연령, 그리고 기회제공에 따른 자기결정력과의 관계를 밝힌 Abery와 McGrew 그리고 Smith(1995)의 연구에서도 장애 학생들의 자기결정력은 개인의 장애 정도와 연령에 따라서는 통계적 유의차를 보이지 않는데 반해, 자기결정력 신장을 위한 기회가 제공된 장애 학생들의 경우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학생들보다 자기결정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고함으로써, Wolman 등(1994)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에 반해 연령과 성별, 장애 유형에 따른 자기결정력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Wehmeyer과 Kelchner(1995), Wehmeyer(1997)에 의하면 남·녀의 경우 어떤 영역에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자기결정력의 총점에 있어서는 남·녀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는데 반해, 연령과 장애 유형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연령이 높은 학생들일수록 자기결정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장애 학생들의 자기결정력이 가장 높게 나타난 데 반해, 정신지체 학생들의 자기결정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학습장애와 비장애 학생들간의 자기결정력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Zhang(1998) 또한 자기결정력은 성별과 장애 유형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데 반해,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함으로써 Wehmeyer과 Kelchner(1995), Wehmeyer(1996)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연령과 자기결정력간의 관계에 대한 Wehmeyer과 Kelchner(1995), Wehmeyer(1996), Zhang(1998)의 연구 결과는 Wolman(1994) 등과 Abery와 McGrew 그리고 Smith(1995)의 연구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장애학생들의 자기결정력과 졸업 후 성인기 결과간의 관계에 대한 Wehmeyer

과 Schwartz(1997)의 연구에서는 자기결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졸업 후의 성인기 결과에서도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자기결정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그 대표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ield와 Hoffman(1996)은 자기결정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역할 모델에 대한 활용능력, 교육과정 변인, 선택기회, 학생행동에 대한 반응, 학생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의 활용능력을 강조하였고, Abery 등(1995)은 자기결정력을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산물로 보고 개인과 환경 요인이 자기결정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결정력을 촉진시키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환경 변인을 가정과 학교로 규정하였다.

즉, 장애 학생들이 속해 있는 가정 환경은 유아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성인기 전반에 걸쳐 개인의 자기결정력 신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시기에 가정에서 학생들의 자기결정적 행동을 촉구하고 의사결정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해줌으로써 자기결정력을 극대화 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하였고, 학교 환경에서는 자기결정과정과 교육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충분히 제공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자기결정력 습득과 향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Powers와 Sowers(1995)는 장애 학생들의 자기결정력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장애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인들의 격려, 그리고 장애 학생과 또래 동료들이 함께 경험하고 통합적 환경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의 확장 등으로 꼽았다.

정신지체 591명을 대상으로 환경과 자기결정력간의 관계를 연구한 Tøssebro(1995)에 따르면 1-5명 사이의 거주 규모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지체인들의 경우 6-16명 사이의 거주 규모에 속한 정신지체인들보다 자기결정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한 연구가 Wehmeyer과 Kelchner, 그리고 Richards(1995)에 의해 실시되었고,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독립적인 생활(친구와 함께,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별다른 지원이 없거나 혼자서 생활하는 경우)을 영위하는 정신지체인들과 가족 구성원과 함께 생활하는 5명 이하의 정신지체인들이 10명 이상의 시설 환경이나 9명 이하의 그룹홈에 거주하는 정신지체인들보다 자기결정력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개인의 자기결정력은 보다 소규모의 집단일수록 그리고 가정과 유사한 환경일수록 신장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고, 이 외에도 장애수준과 일차 양육자 또한 정신지체인들의 자기결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지체인의 작업환경과 거주상태에 따른 Wehmeyer과 Bolding(1999)의 후속 연구에서도 지원 또는 경쟁 고용에 있는 정신지체인들이 보호작업장에 있는 정신지체인들보다 자기결정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지역사회의 환경에 통합되어 있는 정신

지체인들이 시설에 있는 정신지체인들보다 자기결정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경도 정신지체인 48명을 대상으로 고용상태와 거주형태에 따른 자기결정력과 삶의 질을 비교한 신현기와 박성우(2003)의 연구에서도 고용상태에 있는 경도 정신지체인이 미고용상태에 있는 경도 정신지체인들보다 자기결정력과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시설보다는 가정에 있는 경도 정신지체인들의 자기결정력과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보고함으로써, Tøssebro(1995), Wehmeyer과 Kelchner, 그리고 Richards(1995), Wehmeyer과 Bolding(1999) 등의 연구 결과를 더욱 신빙성 있게 지지하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결정력에 대한 정의와 모델 그리고 요소들은 선행 연구에서도 매우 복잡하고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개념들을 크게 자기결정적 특징(자기지식, 자기 옹호, 목표설정)과 기술 그리고 자기결정의 기회(자기결정 기회의 확대, 환경변인, 지원과 수용)의 맥락에서 개념화시킨다면 보다 쉽게 정의되고 구조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많은 연구 결과들에서 자기결정력의 이점을 강조하고 있고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대안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교사와 부모들이 학생들의 졸업 후 성인기 생활로의 성공적인 전환과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자기결정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교수 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자기결정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들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특수교육에서의 삶의 질 연구

삶의 질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어떤 단일화된 구조나 정의로 개념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Sands와 Kozleski(1994)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의 경우 비록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하더라도 독립성과 선택하기 및 자신의 선호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Sands와 Kozleski(1994)은 개인의 삶의 질은 지역사회로의 접근성과 완전 통합, 거주배치 형태, 의사결정시 참여 수준의 3가지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Edgerton(1996)은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있어 다음의 네 가지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개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고자 할 때 표준화된 검사뿐만 아니라 반드시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 또한 고려하여야 하고, 둘째, 어떤 표준화된 상황이나 객관적인 삶의 형태는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보기는 어려우며, 셋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단일의 표준화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넷째, 장애인들의 경우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계획에 반드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Jimin, 1997. 재인용).

Schalock(1990)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요인으로 자기결정력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고, 자기결정력이 증가하면 할수록 개인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Wehmeyer(1995) 또한 자기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더 나은 삶의 질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자기결정력이 증가될수록 개인의 삶의 질 또한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Alexander와 Willems(1981)은 개인의 삶의 질을 개인과 개인이 직면해 있는 환경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고려하였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Winner(2000)는 개인의 삶의 질을 작업장 경험 정도(보호환경, 지원환경, 경쟁환경)와 지능지수 및 월수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주장한데 반해 연령과 장애수준은 개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삶의 질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서는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 자기결정력과 선택 능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나타내고 있다(Sands & Kozleski, 1994).

Mann, Harmoni와 Power(1989)도 개인의 삶의 질을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보고함으로써 자기결정력과 삶의 질 간의 밀접한 관계를 주장하였으며(Zapata, 2000, 재인용), Wehmeyer과 Schwartz(1997)의 연구에서도 고등학교에서 자기결정력을 습득한 성인들의 경우 그렇지 못한 성인들보다 삶의 질과 결과면에서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경도와 중도 정신지체인들을 대상으로 거주형태와 연령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해 연구한 Faulkner(1995)에 따르면 가정에 있는 정신지체인들이 시설에 있는 정신지체인들보다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장애유형과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Chubon, Clayton과 Vandergriff(1995)의 연구에서는 정신적 발달 장애를 가진 학생들보다는 신체적 발달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신체적 발달 장애 학생들의 경우 이동성이, 정신적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경우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수준이 개인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결과에서 밝힌바 있다.

또한 Schalock와 Lilley(1986)은 지역사회에 거주중인 정신지체인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대해 연구하였고, 연구 결과 보다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일하는 정신지체인들이 그룹 홈이나 가정 그리고 미고용상태의 정신지체인들보다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거주상태와 가족참여, 수입정도, 장애인 수 그리고 연령 변인이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인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Harris와 그의 동료들(1985)은 전화면담을 통해 1,000명의 경도 장애인들과 1,000명의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의 질에 대해 조사하였고, 연구 결과 장

애인들의 경우 비장애들보다 삶의 질에 있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장애인들 중에서도 지적능력과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Zapata, 2000, 재인용).

이와 같이 개인의 자기결정력과 삶의 질은 개인이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 장애 수준에 따라 매우 복잡한 구조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단편적 측면이 아닌 인간 중심 서비스 지원의 원리에 입각하여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결정력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경도정신지체학생들의 배치형태에 따른 자기결정력과 삶의 질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설치되어 있는 2개 특수학교와 14개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간단한 문자나 몸짓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도 정신지체 학생 68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대상자들의 구체적인 실태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 실태

배치형태	n	IQ		SQ	
		M	SD	M	SD
통합학급	22	60.71	1.87	66.39	2.74
특수학급	24	59.26	2.01	64.19	2.98
특수학교	22	57.18	2.32	63.43	3.17

2. 연구 설계

이 연구는 경도장애학생들의 배치형태에 따른 자기결정력과 삶의 질을 구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학생들의 배치형태(특수학교, 특수학급, 통합학급)를 독립변인으로 자기결정척도와 삶의 질 척도를 종속변인으로 한 일요인 설계에 의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3. 연구절차

이 연구를 위한 연구대상자의 선정은 2007년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2주간 이루어졌고, 이후 10월 8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해당 교사에게 검사지를 보내 자기결정 척도와 삶의 질 척도를 평가하게 하였다. 이 때 문장 해독력과 이해력이 가능한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문장 이해력과 해독력이 다소 떨어지는 학생들의 경우 교사가 학생에게 질문을 하고, 반응하는 형태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4. 연구도구

1) 자기결정력 척도

학생들의 다양한 장애유형과 연령에 따른 자기결정력을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AIR Self - Determination Scale 중 자기결정 수행능력(교사용)과 Durlak 등(1994)의 Self-Awareness Checklist(교사용)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기결정 요소를 추출하여 이 연구에 맞게끔 10문항으로 재구성하였고, 검사지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 $\alpha=.83$ 으로 나타나 검사지로서의 신뢰도는 확보되었다.

2) 삶의 질 척도

학생들의 다양한 장애유형과 연령에 따른 삶의 질을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박승희(2002)의 '한국 장애인의 삶의 질 측정도구(QLMI-KD)'를 참고로 하여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게끔 재구성하였다.

QLMI-KD 검사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정서적 안녕과 만족 7문항, 대인관계 5문항, 물질적 안녕 5문항, 개인의 수행과 발달 14문항, 신체적 안녕 4문항, 자기결정과 선택 3문항, 사회적 통합 8문항, 권리 7문항의 총 51문항으로 고안되어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장애 학생들이 문항의 질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숙한 질문들을 선별하여 10문항으로 재구성하였고, 재구성된 10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 $\alpha=.86$ 으로 나타나 검사지로서의 신뢰도는 확보되었다.

5. 자료 처리

자기결정력 척도와 삶의 질 척도는 각각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들의 평가

정도에 따라 ‘그렇다’에는 3점을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에는 2점을, ‘그렇지 않다’에는 1점을 마지막으로 ‘잘 모르겠다’, ‘무반응’, ‘문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을 경우’에는 0점을 주어 전체 점수의 합을 구하였다.

이를 기초로 경도장애학생들의 배치형태에 따른 자기결정력과 삶의 질을 알아보기 위해 배치형태(통합학급 VS 특수학급 VS 특수학교)를 독립변인으로, 자기결정력 척도 점수와 삶의 질 척도에서의 개인 간 총점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나타날 경우 Tukey-HSD를 통해 평균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IV. 연구결과

1. 자기결정력

경도장애학생들의 배치형태에 따른 자기결정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된 기술통계 결과 나타난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자기결정력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배치형태	N	자기결정력	
		\bar{X}	SD
통합학급	22	27.18	1.22
특수학급	24	25.92	1.02
특수학교	22	24.50	.81
소 계	68	25.87	1.48

경도장애학생들의 배치형태에 따른 자기결정력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결정력 척도에서 나타난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배치형태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 표 3 > 자기결정력에 대한 일원변량 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 간	79.20	2	39.69	37.52***
오차	68.61	65	1.06	
전체	147.81	67		

*** p<.001

위의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배치형태에 따른 경도장애학생들의 자기결정력에 있어 주 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F=37.52,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효과인 배치형태에 따른 경도장애학생들의 자기결정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Tukey의 HSD 사후검증절차를 적용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사후검증결과 요약표

평균	배치형태	통합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bar{X}=27.18$	통합학급	-	1.27*	2.68*
$\bar{X}=25.92$	특수학급	-	-	1.42*
$\bar{X}=24.50$	특수학교	-	-	-

HSD=2.39

* $p<.05$

위의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도장애학생들의 배치형태에 따른 사후검증결과 통합학급과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합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경도장애학생($\bar{X}=27.18$)들이 특수학급($\bar{X}=25.92$)과 특수학교($\bar{X}=24.50$)에 배치되어 있는 경도장애학생들보다 자기결정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수학급에 배치된 경도장애학생집단 또한 특수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학생집단보다 자기결정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분리된 배치형태보다 통합된 배치형태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일수록 자기결정력이 높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2. 삶의 질 수준

경도장애학생들의 배치형태에 따른 삶의 질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된 기술통계 결과 나타난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자기결정력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배치형태	N	삶의 질	
		\bar{X}	SD
통합학급	22	26.23	1.11
특수학급	24	25.83	.91
특수학교	22	23.00	2.09
소 계	68	25.04	2.02

경도장애학생들의 배치형태에 따른 삶의 질을 알아보기 위해 삶의 질 척도에서 나타난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배치형태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 표 6 > 삶의 질에 대한 일원변량 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 간	137.67	2	68.84	32.61***
오차	137.19	65	2.11	
전체	274.87	67		

*** p<.001

위의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배치형태에 따른 경도장애학생들의 삶의 질에 있어 주 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F=32.61,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효과인 배치형태에 따른 경도장애학생들의 삶의 질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Tukey의 HSD 사후검증절차를 적용한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사후검증결과 요약표

평균	배치형태	통합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bar{X}=26.23$	통합학급	-	.39	3.22*
$\bar{X}=25.83$	특수학급	-	-	2.83*
$\bar{X}=23.00$	특수학교	-	-	-

HSD=2.41

* p<.05

위의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나타난 바와 같이 경도장애학생들의 배치형태에 따른 사후검증결과 통합학급과 특수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통합학급과 특수학급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합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경도장애학생($\bar{X}=26.23$)들의 경우 특수학교($\bar{X}=23.00$)에 배치된 경도장애학생들보다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수학급에 배치된 경도장애학생($\bar{X}=25.83$)집단 또한 특수학교($\bar{X}=23.00$)에 배치되어 있는 학생집단보다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배치형태가 통합으로 갈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통합학급과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경도장애학생들의 삶의 질을 비교하였을 때 통합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학생집단($\bar{X}=26.23$)이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학생집단($\bar{X}=26.23$)보다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다.

3. 자기결정력과 삶의 질과의 관계

특수한 학습 요구를 가진 학생들의 자기결정력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자기결정력과 삶의 질에 대한 상관분석표

	자기결정력	삶의 질
자기결정력	-	.68*
삶의 질	.68*	-

* p<.05

위의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경도장애학생들의 자기결정력과 삶의 질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r=.68$, $p<.05$ 로 나타나 자기결정력과 삶의 질은 매우 강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도장애학생들의 경우 자기결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삶의 질 또한 높아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경도장애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령기 때부터 자기결정력에 대한 교수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경도장애학생들의 배치형태에 따른 자기결정력과 삶의 질을 구명하기 위한 연구로서 진술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연구목적별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통합학급에 있는 경도장애학생들이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배치된 학생들보다 자기결정력이 높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인의 자기결정력을 환경과의 통합으로 고려한 Powers와 Sowers(1995), Tøssebro(1995), Abery와 McGrew 그리고 Smith(1995) 등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분리교육의 형태보다 통합교육의 형태에서 다양한 선택 기회를 기대해볼 수 있고, 이러한 다양성들이 결국 경도장애학생

들의 자기결정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둘째, 통합학급에 있는 경도장애학생들이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배치된 학생들보다 삶의 질이 높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인의 삶의 질을 완전통합의 맥락에서 고려한 Sands와 Kozleski(1994)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으며, 이로 미루어볼 때 개인의 삶의 질은 발달연령에 따른 자연적 변화가 아닌 개인이 직면한 환경이나 교육기회, 활동경험 등의 요소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셋째, 경도장애학생들의 경우 자기결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삶의 질 또한 높다. 이러한 결과는 박성우와 이상진(2004), Martin 등(1996)과 Ward(1988), Schalock(1996), Sands와 Kozleski(1994), Mann과 Harmoni 그리고 Power(1989), Wehmeyer과 Schwartz(1997), 등의 연구와도 일치하고 있으며, 따라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자기결정력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경도장애학생들의 배치형태에 따라 개인의 자기결정력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 연구는 장애학생들의 통합교육의 당위성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연구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장애학생들의 자기결정력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장차 이들이 성인기 생활에 성공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고려되며, 이러한 기술들이 학령기에서 적절히 지원되기 위해서는 배제금지 원칙에 입각하여 가능한 분리형태가 아닌 최소화제한적 환경에서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들이 보다 일반화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적인 보완연구들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 적용한 자기결정력과 삶의 질 검사지의 경우 현장 교사의 검증을 통해 검사문항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검사문항이 매우 제한적일 수 있으며 이에 자기결정력과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차이 정보는 제공할 수 있으나, 자기결정력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영역이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자기결정력과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내적 요소들에 대한 구조화된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이 연구의 대상자들의 경우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설정한 기준에 의거 표집하기는 하였으나, 배치형태에 따른 차이만을 규명할 뿐 개인의 기질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에 따른 자기결정력과 삶의 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기는 어렵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개인의 내면적 및 외현적 특성을 고려한 자기결정력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이 연구의 결과에서도 제시한 바 있듯이 장애학생들의 자기결정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완전통합교육에 입각하여 학교의 재구조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현재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재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에 추수 연구에서는 현행 교육과정을 기초로 학생들에게 보다 적합한 교육과정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정 수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박승희(2002). 한국장애인의 삶의 질 측정 도구 개발 연구, **특수교육연구**, 37(2), 41-78.
- 박성우(2004). 자기결정 프로그램의 적용이 경도 정신지체 학생의 자기결정력과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박성우, 이상진(2004). 특수한 학습요구를 가진 학생들의 장애유형과 연령에 따른 자기결정력과 삶의 질 비교. **정서·행동장애연구**, 20(3), 181-206.
- Abrey, B. H., McGrew, K., & Smith, J.(1995). The contribution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 to the self-determination of children and youth with disabilit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Agran, M., & Hughes, C.(1998).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 Self- determination: signal a system change? *The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Severe Handicaps*, 23, 85-104.
- Alexander, J. L., & Willems, E. P.(1981). Quality of life: Some measurement requirements.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62, 261-265.
- Blackorby, J., & Wagner, M.(1996). Longitudinal postschool outcomes of youth with disabilities : Finding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Transition Study.n *Exceptional Children*, 62, 399-413.
- Chubon, R. A., 과 Clayton, K. S., & Vandergriff, D. V.(1995). An exploration study comparing quality of life of south carolinians with mental retardation and spinal cord injury.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39(2), 107-119.
- Faulkner, E. H.(1995). Quality of life : A comparative study of institutional and community-based care for adults with mental retard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ebraska.
- Field, S., Hoffman, A., Peter, S., & Sawilowsky, S.(1992). Effects of disability labels on teachers' perceptions of students' self-determination. *Perceptual and Motor Skills*, 75, 931-934.
- Field, S., & Hoffman, A.(1996). Development of a model for self-determination. *Career Development of Exceptional Individuals*, 17, 159-168.
- Jimin. S.(1997). Relationship of residence and employment on the quality of life of individuals with mild or moderate mental retard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 Sands, D. J., & Kozleski, E. B.(1994). Quality of life differences between adult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Education and Training in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29, 90-101.
- Schalock, M.(1990). Attempts to conceptualize and measure quality of life. *Quality of life Perspectives and issues*, 141-148.
- Schalock, R., & Lilley, M.(1986). Placement from community-based mental retardation programs : How well do clients do after 8 to 10 years?.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90(6), 669-676.
- Tossebro, J.(1995). Impact of size revisited : Relation of number of residents to self-determination and deprivation.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100,

59-67.

- Wehmeyer, M. L.(1992). Self-determination and the education of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Education and Training in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21, 302-314.
- Wehmeyer, M. L.(1994). Perception of self-determination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of adolescents with mental retardation. *Education and Training in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Vol. 29, 9-21.
- Wehmeyer, M. L., Kelchner, S.(1996). Measuring the autonomy of adolescents and adults with mental retardation. *Career Development for Exceptional Individuals*, 18, 3-20.
- Wehmeyer, M. L., Kelchner, K., & Richards, S.(1995).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factors related to the self-determination of adult with mental retardation.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5, 291-305.
- Wehmeyer, M. L.(1997). Self-determination as an educational outcome: A definitional framework and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Physical Disabilities*, 9, 175-209.
- Wehmeyer, M. L., & Schwartz, M.(1997). Self-determination and positive adult outcome : A follow up study of youth with mental Retardation or learning disabilities. *Exceptional Children*, Vol. 63, No. 2, 245-255.
- Wehmeyer, M. L., & Palmer, S.(1998). Student's expectation of the Future : Hopelessness as a Barrier to Self-determination. *Mental Retardation*, Vol. 36, No. 2, 128-136.
- Wehmeyer, M. L., & Bolding(1999). Self-determination across living and working environment : A matched - samples study of adult with mental retardation. *Mental Retardation*, 37, 353-363.
- Winer, J. J.(2000). Quality of life and the work environ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gration in the work environment and quality of life as perceived by individuals with mental retard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eshiva University.
- Wolman, J. M., Campeau, P. L., Dubois, P. A., Mithaug, D. & Stolarskis, V. S.(1994). AIR Self-determination Scale and User Guide. *American Institutes for Research*.
- Zhang, D.(1998). The effects of self - determination instruction on high school students with mild disabilit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w Orleans.
- Zapata, B. A.(2000). Relationship of between quality of life for adults with mental retardation and type of job plac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university.

The comparison to self-determination and quality of life on placement type of students with mild mental retardation.

Kim, Yoong Wook

Taegu University

Park, Sung - Woo

Korea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

Choi, Gi - Sang

Korea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 1) explore the relationship of placement type to self-determination of students with mild mental retardation. 2) explore the relationship of placement type to quality of life of students with mild mental retardation. 3)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etermination and quality of life of students with mild mental retard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Firstly, students with mild mental retardation on placement in inclusive class demonstrated higher self-determination than the other two groups.

Secondly, students with mild mental retardation on placement in inclusive class demonstrated higher quality of life than the other two groups.

Thirdly, self-determination showed positive correlation to quality of life. That is, self-determined students with mild mental retardation presented a better quality of life.

Key Words : self-determination, placement type, quality of life.

논문 접수: 2007. 11. 5 심사 시작: 2007. 11. 9 게재 확정: 2007. 12. 17